

2008년 11월 25일 화 말씀

1999년 전에 전도된 사람만 알지 그 후 10년 동안 전도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내가 생각 보다 한국에 일찍 들어온 것입니다. 원래 20년 동안 외국에 있으려고 했었는데 이번 일 때문에 10년 일찍 당겨서 들어온 것입니다. 이제 한국에 와서 사니까 잘 된 것입니다.

대구는 예전보다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. 교회가 가까운데 있어야 찾아서 가기가 좋습니다. 교통이 불편하고 멀면 가기가 어렵습니다. 원래 여러분들 교회는 4개입니다. 왜 4개인지 가르쳐주겠습니다. 첫 번째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다. 두 번째는 여러분의 집이 교회입니다. 그 교회에는 집이어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씻을 수도 있고 편의 시설이 다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 교회는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월명동의 자연성전이 교회입니다. 마지막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?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.

예수님이 말씀 하셨습니다. 자기 자신이 교회라고.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. 그렇지 않고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만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. 교회에 빠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. 빠지면 안 됩니다. 아무리 물이 좋아도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. 꿀이 아무리 좋아도 꿀에 빠져서 꿀만 먹으면 당뇨병 걸리고 몸에 좋지 않습니다. 다음에 꼭 한 번 내가 다시 이야기 해줄 것입니다. 이 4개 교회를 꼭 알고서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.

생명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 하면 안 됩니다. 가족 전도할 때도 포기 하지 마십시오. 교회가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

끓어지는 것도 관리하기에 달린 것입니다. 관리 하는 것에 따라 20년은 더 써먹을 수 있습니다. 뜨거운 물도 떠다 놓고 1시간만 그대로 놓고 있으면 식지만 뽕뽕 싸서 뜨끈한 아랫목에 물어두면 식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. 이만큼 관리가 중요하니 꼭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.

해외에 나가는 것도 잘 알아서 나가야 합니다. 해외 나갔다 온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안 나가려고 합니다. 그러니 잘 알아보고 나가야 합니다.

캐나다도 내가 예전에 갔었습니다. 내가 다녀갔던 곳은 기적적으로 교회가 생깁니다.

관리 할 때는 잘 해야 합니다. 관리 할 때는 그 사람의 단점도 보면서 해야지 장점만 보고 하면 힘듭니다.